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지부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136-075) | 전화 (02) 920-5159 | 전송 (02) 923-0487 | ID:KUMCLU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152-703) | 전화 (02) 2626-1915 | 전송 (02) 2626-19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번지 (420-020) | 전화 (031) 412-5353 | 전송 (031) 412-535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 제목 : [취재요청서] 7월 19일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파업 7일차 총파업대회 진행
- 담당 : 지부장 직무대행 송은옥 010-8780-4910 / 지도위원 노재옥 010-8026-4495

[취재요청서] 7월 19일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파업 7일 차 총파업대회 진행

세상에 없는 ‘미래병원’ 을 만들겠다는 고대의료원, 고대의료원은 시설에만 투자말고, 사람에게 투자하라!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파업 7일 차 총파업대회 예정

7월 19일(수) 11:00 고대안암병원 로비에서 총파업대회 진행(재단본부까지 행진)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2021년 11년 만의 파업에 이어 2년 만에 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이후 각 병원 타결중이나 서울지역 유일 파업사업장.

1조 클럽, BIG6를 넘어 이제는 세상에 없는 ‘미래병원’ 을 만들겠다는 고대의료원,

하지만, 직원들은 건물, 시설 장비에 밀려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에 허덕여.

10년 전 15% 수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2022년 12월 기준 22.46%로 증가(1,700여 명)
2022년 경상이익 1,590억 원을 달성했지만, 직원들의 노고에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인상안 제시.

▲환자안전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과 중증질환에 맞는 숙련된 간호인력 및 보조인력 배치 ▲각 병원 증축과 리모델링에 따른 인력충원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전년도 의료원 이익에 맞는 적정소득분배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7일 차 맞이해.

-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지부장 직무대행 송은옥, 조합원 4,263명)가 파업 7일째를 맞이하는 7월 19일(수) 오전 11시 고대의료원지부 총파업대회를 고대안암병원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 이번 총파업대회는 고대의료원 3개 병원(안암, 구로, 안산병원)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 1천여 명이

고대안암병원 로비에 모여 ▲환자 안전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각 부서 인력 기준 마련과 중증질환에 맞는 숙련도 확보위한 적정인력 배치 ▲각 병원 증축과 리모델링,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전년도 의료원 이익에 맞는 적정소득분배 요구하며 재단본부(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까지 행진을 진행합니다.

- 고대의료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과 함께 7월 13일부터 파업을 시작하였고, 산별총파업 종료 이후 타 병원에서 속속 산별현장교섭 타결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부는 관련노동법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 부서에는 근무를 유지하며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BIG5 병원을 바짝 추격하며 BIG6 병원을 자처하는 고대의료원은 2018년 의료수익 1조 클럽 시대를 열었고, 2022년 의료수익 1조 4천 200억 원, 당기순이익 760억 원, 경상이익 1,590억 원을 기록하며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세상에 없는 ‘미래병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의료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라며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료산업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 했으나 “기존 교수진은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신규 인재 부분에서는 영입”이라며 의사만을 이야기할 뿐 병원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반직 노동자들은 뒷전이었습니다.
- 고대의료원의 인력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매년 건물이 증축되고 병상이 증가하면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했을 뿐, 이외의 시설을 관리 감독하거나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부서의 인력충원은 적정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례로 부서로 약품을 날라주는 일반업무직종 중 10년째 그 정원을 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부서, 영양팀등은 정규직을 채워주지 않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두 배 이상입니다.
- 또한, 2011년 16.25% 수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10년이 지난 2022년 12월 기준으로 22.46%까지 증가하여 1,7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인력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똑같이 환자를 보고 있지만 기간제 일반직 기준 정규직 대비 86.2%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타 사립대병원의 경우 이화의료원, 가톨릭의료원, 경희의료원, 조선대병원, 아주대병원이 정규직 대비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이 100% 수준이고, 대부분 10% 이하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지만 고대의료원만 유독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고대의료원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환자와 보호자 곁에서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고대의료원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역할에 집중하고, 내실을 다져나가겠다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 및 직원에 대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2023 보건의료노동자 정기실태조사 결과에서 업무량과 노동강도에 대한 직장생활 만족도에 대한 답변으로 조금 불만과 매우 불만의 응답률 합계는 2021년 75.5%, 2022년 82.5%, 2023년 75.6% 수준이었고, 전국 보건의료노조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도 14.2%, 20.3%, 15.8%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고대의료원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IG5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대의 전략으로 초격차 연구 중심 의료기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과 남양주에 병원 확장을 예정하고 있고, 안암병원에서는 최첨단 융복합 의료센터, 구로병원에서는 미래관 신축이 최근 마무리되었고, 안산병원에서는 미래의학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덩치는 계속 커져가고 있지만 인력과 직원들의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대의료원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임금인상율은 10년간 평균 2.72%에 그쳤습니다. 작년 1,590억 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한 고대의료원은 직원들의 노고에 합당한 임금인상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고대의료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 중증도에 맞는 간호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떠밀려 사용하게 되는 연차휴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 쓰기조차 눈치 보이는 생리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수인력부서의 적정인력 충원 등으로 주 6일 근무가 아닌 주 5일제 근무를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파업 7일 차에 접어들었으나 의료원은 여전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힘들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노사 양측간의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부는 언제든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의료원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성실한 교섭으로 장기 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고대의료원지부는 오늘(7/18)로 파업 6일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가하는 모든 조합원들은 하루 빨리 파업을 마무리하고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속에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에 불성실한 교섭으로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의료원과 재단의 책임을 촉구하며 고대의료원지부 총파업대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언론사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지부